



루터의 종교개혁

■ 루터의 종교개혁

- 종교개혁은 서양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전제임.
-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 개혁 운동 추진. 대부분의 북유럽 지역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가톨릭과 단절.
- 1560년경 가톨릭 자체적으로도 종교개혁 시행.
- 르네상스는 고전문학의 연구. 종교개혁은 초대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이어받으려 함.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

■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

- 성직의 매매와 인덜전스(면죄부)의 판매로 인해 불신과 비판이 일어남. 아울러 경건한 신앙을 중시하고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복귀를 부르짖는 주장들이 일어남.
- 교황권의 쇠퇴 : 아비뇽 유수 (1309-1376)와 대분열 (1378-1417)로 인해 교황의 권위 실추
- 신비주의자들과 초기 개혁가들의 영향. 성사나 성직자의 기적과 의례보다 깊은 믿음과 경건함 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봄.

■ 루터의 종교개혁 배경

- 14c말 옥스퍼드 대학 존 위클리프(John Wyclif)는 가톨릭을 비판하고 성직자의 비도덕성을 개탄하고 교회의 세속성과 인덜전스(면죄부) 판매를 비판함. 화체설을 부정하며 믿음의 근원으로서 성서의 권위를 강조.
후스(John Huss)는 위클리프의 학설을 보헤미아에 전파하였고 루터는 후에 후스로부터 영향을 받음.
- 왕권의 성장과 국민국가 의식 성장으로 외부 세력에의 간섭을 배제하려함. 교황의 권위와 로마 교회에 항의함.

■ 마르틴 루터(1483-1546)



■ 마르틴 루터

- 루터는 본래 법률 공부를 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했음. 대학 생활동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당시로는 극소수였던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음.
- 그가 만년에 쓴 식탁담화(Tischreden)에 따르면 1505년 7월 2일 개인적인 체험으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
- 1505년 7월 17일 에르푸르트 수도원에 들어감. 수도원 생활중에도 성서를 통해 신학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가짐.

■ 마르틴 루터

- 루터는 1507년 4월 사제 서품을 받고 튀빙겐의 유명론자 가브리엘 빌이 쓴 미사규범에 관해 연구하며 다른 유명론자와 마찬가지로 오직 이름을 가진 특수자만 존재하고 보편은 직관을 통해서 형성한다고 주장
- 1508년 실재론의 영향력이 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성서 강의
- 죄의 문제에 관해 본질적인 고민 시도, 오컴주의 역시 그의 궁금을 만족시켜주지 못함. 오컴주의는 외향적인 도덕주의를 고취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했으나 유혹의 문제에 관해 불확실한 면을 남겨놓

■ 마르틴 루터

- 루터는 "내가 아무리 경건한 수도사였다해도 하나님의 면전앞에서는 설레는 양심을 지닌 죄인이라고 느낀다. "
- 고해성사 역시 루터에게 있어 문제되는 것은 죄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게 모조리 토해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였다. 그는 체험을 통해 기억이 교활하게 자아를 감싸고 인간의 비행가운데는 기억되기는 고사하고 아예 생각나지도 않는 것이 더러 있다는 발견이었다

■ 마르틴 루터

- 그의 갈등은 바울로의 사상의 '하나님의 의' 라는 개념에서 멈춤. '하나님의 의' 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한다는 뜻으로 인식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명.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설명된다는 것을 깨달음. 루터는 오직 믿음(sola fide)으로서만 신 앞에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론. 믿음에 의한 구원은 루터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논제.

■ 마르틴 루터

- 1510년 루터는 교단의 일로 로마에 파견되었고 그 곳에서 로마 교회의 부패와 사치한 면을 보고 개혁의 필요성 절감
- 1511년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옮겨갔고 이듬해 교수가 되고 신학 박사 학위 취득
- 루터는 성경의 여러 책에 관해 모국어로 강의하고 원어들을 공부. 참된 권위는 성서뿐이라고 인식
-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신 앞에서 의롭게 해줄 수 있다고 확신. Sola fide (이신칭의), sola scriptura (죄악된 인간이 구원을 추구함에 있어서 성서가 유일한 권위라는 사상)은 그의 신학체계의 주요 요점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1511년 루터는 작센(Saxony)의 선제후인 프레데릭 현명공(Frederick the Wise)이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University of Wittenberg)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성서를 강의하였고 여기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에 직면. 1517년에 테첼(Tetzel)이라고 불리는 도미니칸 수사가 인덜전스(면죄부)를 판매키 위해 독일 지역에 나타남.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레오 10세 (Leo X, 1475-1521; 1513-21재위)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중 가장 사치했던 인물로 손꼽힘. 레오 10세는 피렌체 공국의 군주인 로렌초 드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었고 1489-91년 피사대학교에서 신학과 교회법을 공부함. 1513년 율리우스 2세가 죽자 추기경들은 메디치 가문출신의 추기경을 선출. 레오는 신성로마제국의 후임 황제로 작센의 선제후를 지지.그러나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가 칼 5세로 선출되자 중립을 지킴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마그데부르크 대주교인 알브레히트 (Albrecht von Hohenzollern; 1490-1545) 는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교황에게 막대한 비용의 성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기부. 알브레히트는 이 돈을 독일의 금융업자인 후거가에게 빌림. 후거가는 독일지역의 광산업을 통해 당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귀족들과의 유착관계로 부를 증대시켜 나감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마인쯔의 대주교가 된 알브레히트는 후거가로 부터의 대부를 갚기 위해 교황으로부터 인덜전스판매권을 얻어 발행. 테첼은 인덜전스(면죄부)를 과대 선전하여 판매함.
- 테첼이 작센 국경까지 접근하자 비텐베르크의 주민들이 싼가격에 인덜전스(면죄부)를 구입하려고 몰려들음.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95개조 반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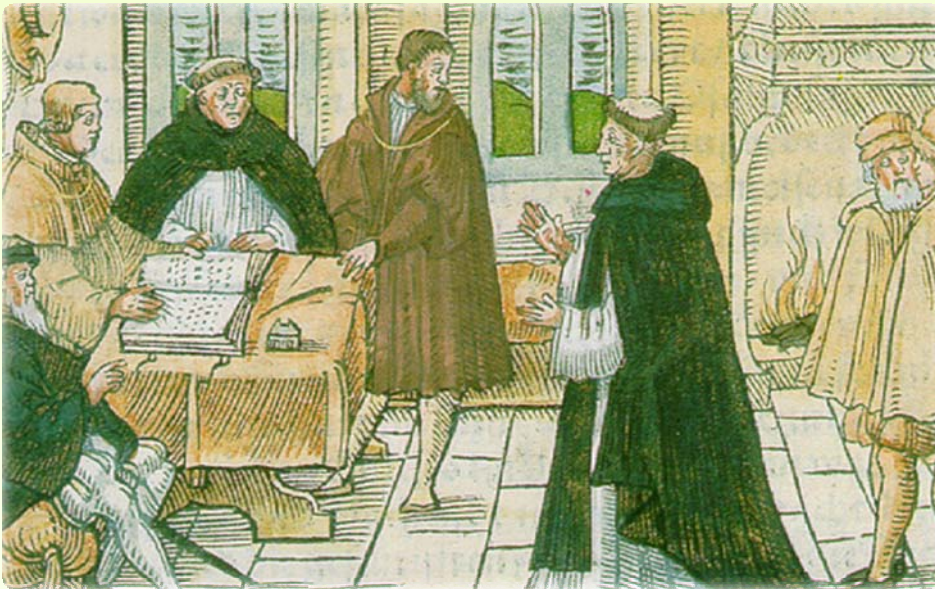
- 루터는 인덜전스의 판매를 보고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지적.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Wittenberg Castle Church)의 문 앞 인덜전스(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Ninety five Theses)을 붙임.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테첼은 비난을 받으며 추방됨. 인덜전스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독일 지역 전역에 일어남.
-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반박문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 또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 1518년 초 교황은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어거스틴 수도원의 총사령 가브리엘 델라 볼타에게 지시했으나 루터는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주장함.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카에탄 추기경과의 면담;1518)



- 로마의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루터는 당시 가장 권위있는 신학자이며 추기경인 카에탄 추기경(Thomas Cardinal Cajetan; 실제 이름은 토마스 비오(Thomas de Vio; 1468-1534))를 아우구스 부르크에서 만남.
- 이 자리에서 추기경은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루터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됨.
- 루터는 자기의 견해가 허위임이 성서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한 철회하지 않겠다고 함. 또한 그는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교황이 최종적 권위라는 것, 그리고 믿음에 없이 행하는 성례의 효용을 부인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라이프치히 논쟁; 1519)

- 루터는 1519년 6월 27일 라이프치히에서 교황청의 신학 교수 에크(Johann Eck; 1486-1543)와 면죄부를 포함한 가톨릭 교리에 대한 논쟁에 자신의 신학이 로마 교회와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
- 비텐베르크로부터 파견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는 곳에 참석했고, 두 대학교의 신학자들, 게오르게 공작, 교회와 국가의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쟁은 시작됨. 에크는 루터가 위대한 콘스탄츠 공의회(1414~18)의 권위를 의심하며, 공의회에서 이단자로 선고받고 화형당한 보헤미아의 개혁자 얀 후스의 전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몰아세움. 라이프치히는 보헤미아에 대해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지방이어서 그곳에서 논쟁을 갖게 된 것은 루터에게 크게 불리. 에크는 논쟁에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큰소리로 자랑.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루터의 파문)



- 1520년 11월 로마 교회는 루터의 신학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 6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루터를 이교도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
-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교황의 선언문을 공개적으로 불태움.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3개의 주요 논문을 발표.
 - '독일국민의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Anden Christiichen Adei deutscher Nation)' 에서 성직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개탄하고 교회의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
 - '교회의 바빌론 유수 (De captivitate Babyionica ecciesiae praeiudium)' 에서 가톨릭의 의례적인 성사 제도를 비판.
 - '기독교인의 자유 (Von der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에서 선행과 성사가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의 '독일귀족에게 고함' 에서 만인사제설을 주장함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1521년 5월 25일 루터는 보름스 칙령 (Edict of Worms)으로 파문당함. 신성로마제국 (Holy Roman Empire)의 황제 칼 5세 (Karl V)는 독일의 제후들을 억압하고 프랑스에 대항해 이태리에서 패권을 장악키 위해 친 교황적이었음. 반면에 제후들은 정치적으로 칼 5세의 중앙집권화에 항의하고 경제적으로 독일의 부(富)가 로마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음.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칼 5세 (Karl V; 1500-1558; 신성로마제국 황제 1519-56 재위; 스페인 왕 카롤루스 1세 1516-56 재위; 오스트리아 대공 칼 1세 1519-21 재위)

- 카스티야 왕 펠리페 1세와 후아나 사이에 태어남. 합스부르크왕가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와 부르고뉴의 마리의 친손자이며 카스티야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왕 페르난도 2세의 외손자
- 발루아 왕가의 프랑수아 1세는 스포르자 공작에게 밀라노 포기를 강요하고 스포르자 공작은 교황 레오 10세와 칼 5세에게 도움 요청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칼 5세 (Karl V; 1500-1558; 신성로마제국 황제
1519-56 재위; 스페인 왕 카롤루스 1세 1516-56
재위; 오스트리아 대공 칼 1세 1519-21 재위)

-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할 무렵 루터의 신조를 반박했으나 이탈리아 문제로 발루아왕가와
의 알력에 치중하고 황제로 선출받기 위해 적
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밀라노와 스페인, 네
덜란드를 물려주고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가 됨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 회 (1525.1.28-1521.5.25)에 소환됨. 여기에서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할 수 없고 본인의 견해를 굳힘. "Hier stehe ich. Ich kann nicht anders. Gott helfe mir. Amen. "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는 본인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으나 의회를 구성한 군주들과 선거인들이 교황에 대해 적대적이어서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음.
- 보름스 의회에서 돌아오는 루터를 작센의 선제후가 납치한 것으로 가장해 그를 바르트부르크 성 (Wartburg Castle , Eisenach)으로 피신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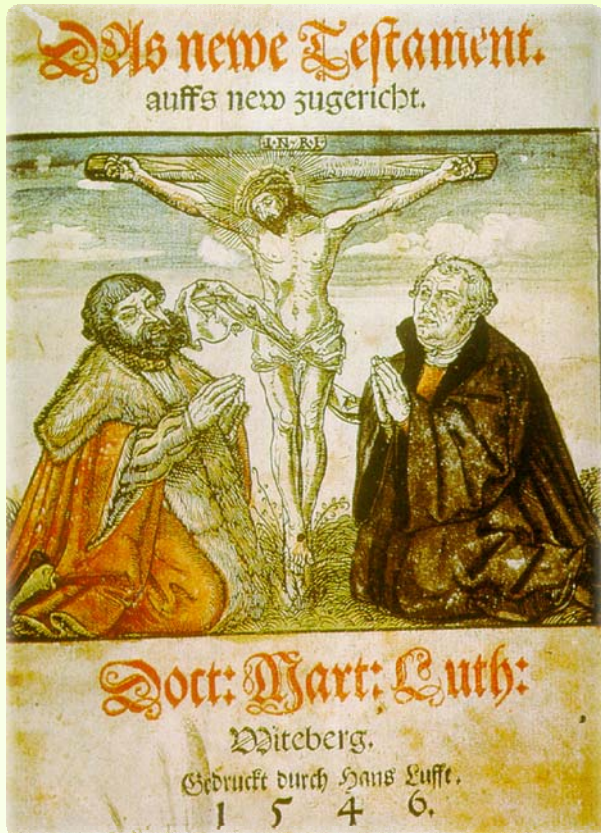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칼 5세는 루터를 범죄자로 수배함.
- 루터는 작센 선제후 (Frederik III, Elector of Saxony; 1463-1525)의 보호아래 안전하게 피신하여 이곳에서 역사적인 신약 성서의 독일어 번역 작업에 몰입함(라틴어로 쓰여졌던 성서를 일반 대중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은 종교개혁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성서 번역은 성서의 보급뿐만 아니라 표준 독일어를 확산시켜 근대 독일어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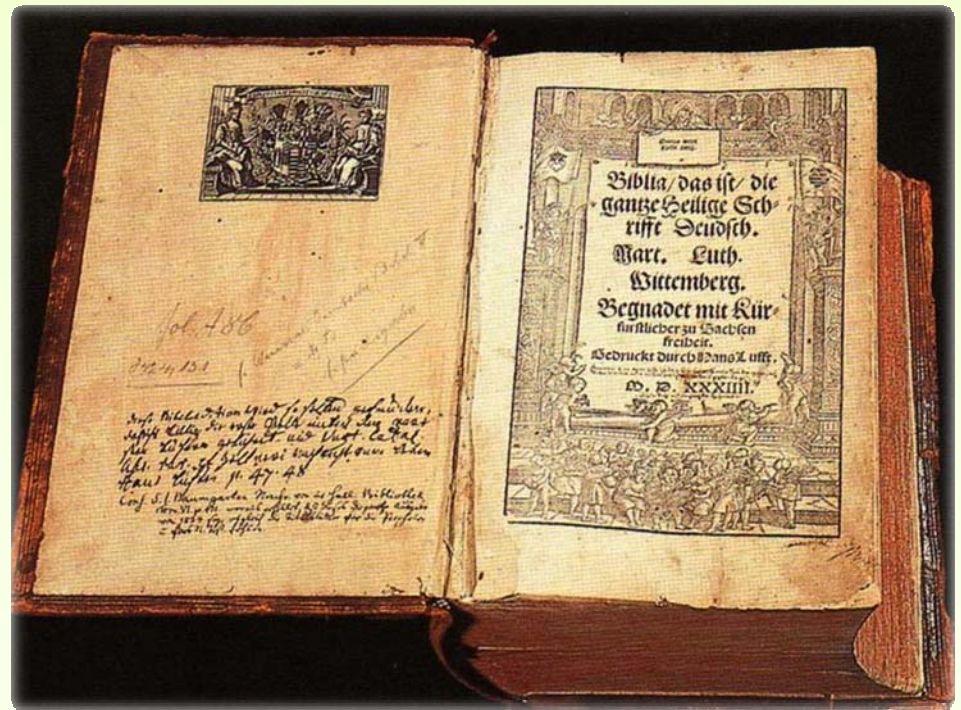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루터는 목회를 행하면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 전통적인 성직 제도(교황, 대주교, 주교)를 배격함. 수도원 제도 폐지, 목회자의 결혼을 주장. 성직자와 평신도들 간의 장벽을 허물.



■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

- 구원에 있어서 행위보다 믿음을 강조함.
- 교회가 국가 위에 존재하는 개념을 포기하고 국가 기관의 관리 하에 교회를 조직함.

농민반란과 재세례파

■ 농민반란

- 루터의 종교개혁 상황을 이용하여 몰락하는 기사들이 반란. 이들의 반란은 대주교와 부유 귀족들에 의해 진압.
- 1524년에 하층 계급의 격렬한 반란이 발생. 농민과 도시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참여. 루터의 급진적 사상에 영향을 받고 반란을 일으킴.

■ 농민반란

- 농민 반란에 참가한 사람들은 주로 재세례파(the Anabaptist)의 농민들이었음.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루터의 가르침을 받아들임. 전통적인 교리 배경. 급진적 사회적 경향의 소유자인 재세례파는 부의 축적을 배격하고 부의 공유를 추구하는 것(원시 기독교 사회주의)이 기독교인들의 의무로 봄. 신 앞에서 평등하므로 신분상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음. 군사적 의무 비난 세금 납세 거부.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 요구.

■ 농민반란

- 1524년의 농민 반란은 남부 독일에서 발생. 농민들은 농노 해방을 요청. 토마스 뮌쩌(Thomas múnzer)같은 극단주의자로 인해 폭력이 수반됨. 1525년 귀족들은 이들을 진압. 루터는 합법적인 권위 이외에 어느 누구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봄.

■ 농민반란

- 1534년 재세레파는 베스트팔렌의 뮌스터를 지배. 뮌스터는 주교 세력에게 점령당하면서 재세레파는 폭력의 무익함을 깨달음. 일부는 메노 사이몬(Menno Simons)을 따라 메노파에 가담. 웨이커 교도의 정신적 선조가 됨.



슈말칼덴 동맹과 아우구스부르크화의

■ 슈말칼덴 동맹과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 1526년 스파이어 제국 의회(Diet of Speier)에서 루터의 추종자들은 의회로 하여금 총공의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보름스 칙령을 중단하고 각 국가의 통치자들이 종교를 선택한다는 원리가 채택되었으나 1529년 개최된 2차 스파이어 제국 의회에서 칼 5세는 이 원리를 철회하고 가톨릭만 인정함.
- 이로 인해 루터를 따르는 여섯명의 제후와 14개의 자유도시 대표들은 항의문(Protestation)을 낭독함. 그 후로 이들은 Protestant로 불림.
-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에서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 1497-1560)은 루터의 허락을 받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을 작성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하고 이는 루터교의 공식적 신조가 됨.

■ 슈말칼덴 동맹과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 1531년 루터파 제후들은 슈말칼덴 동맹을 결성하고 작센공 프리드리히를 중심으로 슈말칼덴 동맹 (Schmalkaldic League)을 결성하여 황제에 대항.
- 1535년 루터파 교회에서 성직자 임명. 로마교회와 완전 분리
-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 (the Religious Peace of Augusburg)에서 타협함. 이 조약에 의해 독일의 군주는 루터교나 가톨릭교중에 선택할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의사에 관계없이 무조건 군주가 지정한 종교를 선택해야 했음